

< 회개와 축복 >

로마서 2:4,5 / 새찬송가 380장 (통일 424장) 나의 생명 되신 주

믿음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마음입니다. 이는 아주 섬세한 마음입니다. 이에 반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섬세하지 않아서 세상의 것에만 치우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섬세한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런 섬세한 마음으로 살펴볼 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1. 무엇보다도 늘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 있느냐 죽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살리는 것이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죽이는 것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있어도 죽이는 것이 들어오면 나는 서서히 죽어갈 것이지만 내가 아무리 죽을 형편이어도 살리는 것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나는 서서히 회복되어 결국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는 우리를 죽이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죄와 정죄와 질병과 저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오직 진정한 ‘회개’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고 가르쳐주십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우리를 죽이는 것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없애는 것은 오직 회개 밖에 없습니다.

회개야말로 죄로 인해 죽은 내 영혼을 살리는 진정한 힘이에요, 내 영혼을 다시 살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란 ‘생각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길이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롬2:4).

그럼에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여서 ‘우리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히려 ‘회개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데 죄를 짓는 것입니다(요일1:8-10).

우리의 그 어떤 죄 보다 ‘회개하지 않는 죄’가 더욱 큼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 하는 자로 만드는데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

는 것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우리는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회개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꾸짖을 때 완고한 마음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삼상15:23). 오늘 본문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고집이 센 자요 완고한 자요 이런 자는 멸망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롬2:5).

회개는 날마다 매순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날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데 죄와 우상 사신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시7:12). 회개하지 않는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기뻐하실 것 없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눅 15:7). 회개는 결국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2. 성령충만이 중요합니다

회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성령충만입니다. 성령충만은 회개로 살아난 영혼의 생명을 점점 더 차오르게 하여 충만한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이 생명력은 육체로 전달되어 병을 이기고 환경으로 나타나 꿈과 비전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기 위해 우리 죄 값을 대신 치르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요6:63). 살아있는 것과 살리는 것은 다릅니다. 살리는 것이 있어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계속 살게 됩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가 살아 있어도 살리는 것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서서히 죽어가다가 마침내는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히4:12).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혼과 영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육신의 치료를 가져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살아있는 말씀이요 또한 영과 함께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적용&실천>

우리는 날마다 매순간 끊임없이 회개하고 있습니까? 진정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우리는 그 음성과 말과 생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두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습니까?